

김재희

미셸 푸코가 말하는 지식과 권력의 관계

아트앤스터디

사람을 중심에 놓는
인문학의 힘을 믿습니다.

인문학 · 문화예술 교육 포털
아트앤스터디

미셸 푸코가 말하는 지식과 권력의 관계

현대 프랑스의 대표 철학자 미셸 푸코가 말하는 권력의 의미! 과연 권력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인간을 억압해 왔는가? 고고학적 분석을 통해, 지식이 권력이 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학습 목표

- 광인, 광기에 대한 시대적 관점에 대해 고찰
- 미셸 푸코가 주목했던 ‘종합병원’의 속성 이해
- 푸코와 니체 사상의 중요 맥락 이해
-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통념’의 속성을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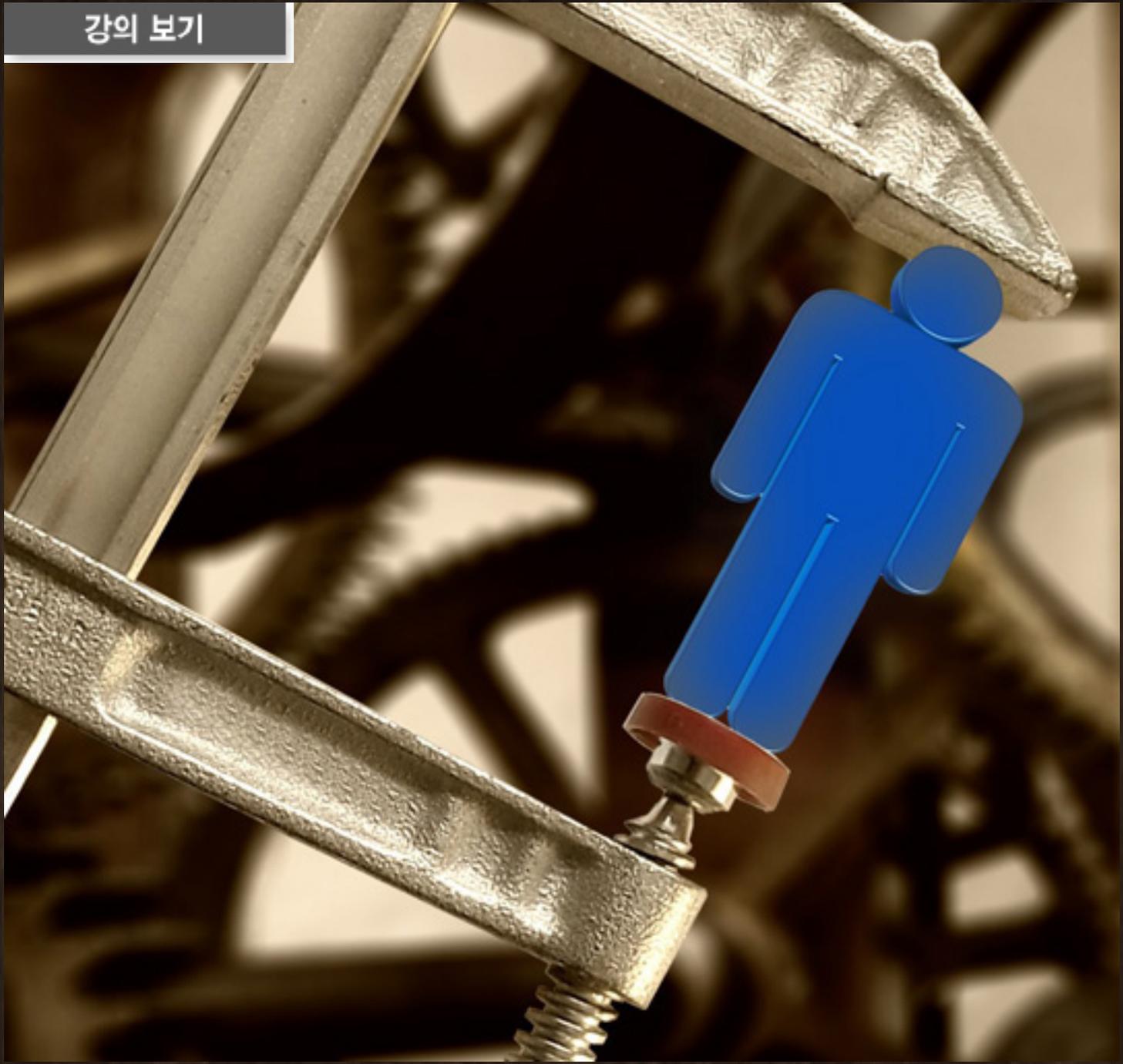
강사 소개

• 김재희

프랑스 철학 연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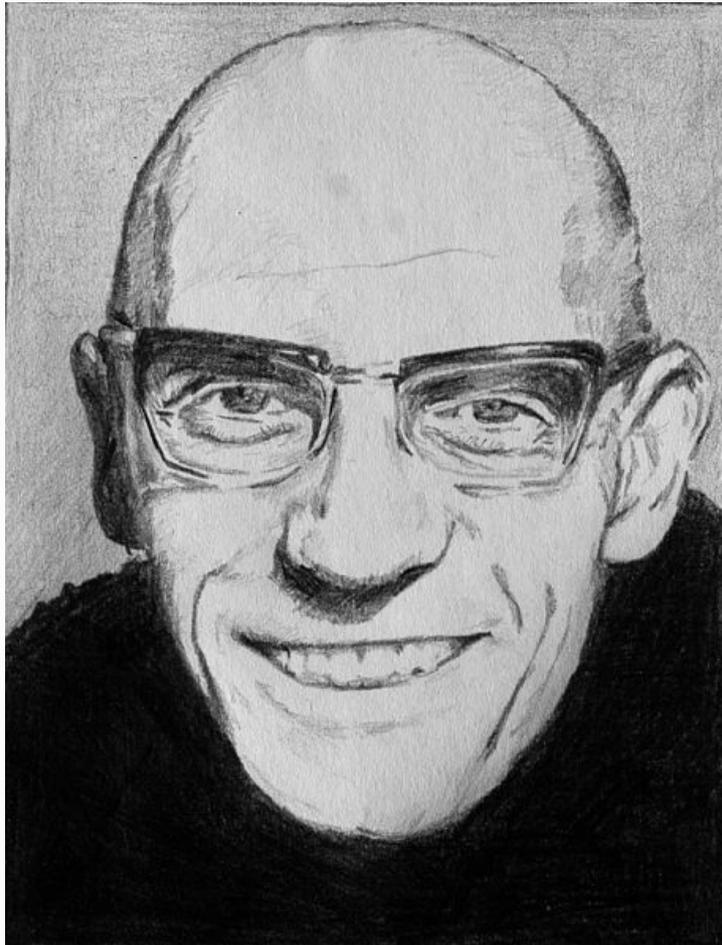
인문연구자. 저서 『베르그손의 잠재적 무의식』,
역서 『에코그래피 - 텔레비전에 관하여』외 다수

강의 보기



- 제목 : 미셸 푸코가 말하는 지식과 권력의 관계
- 강사 : 김재희 (프랑스 철학 연구자)
- 구성 : 23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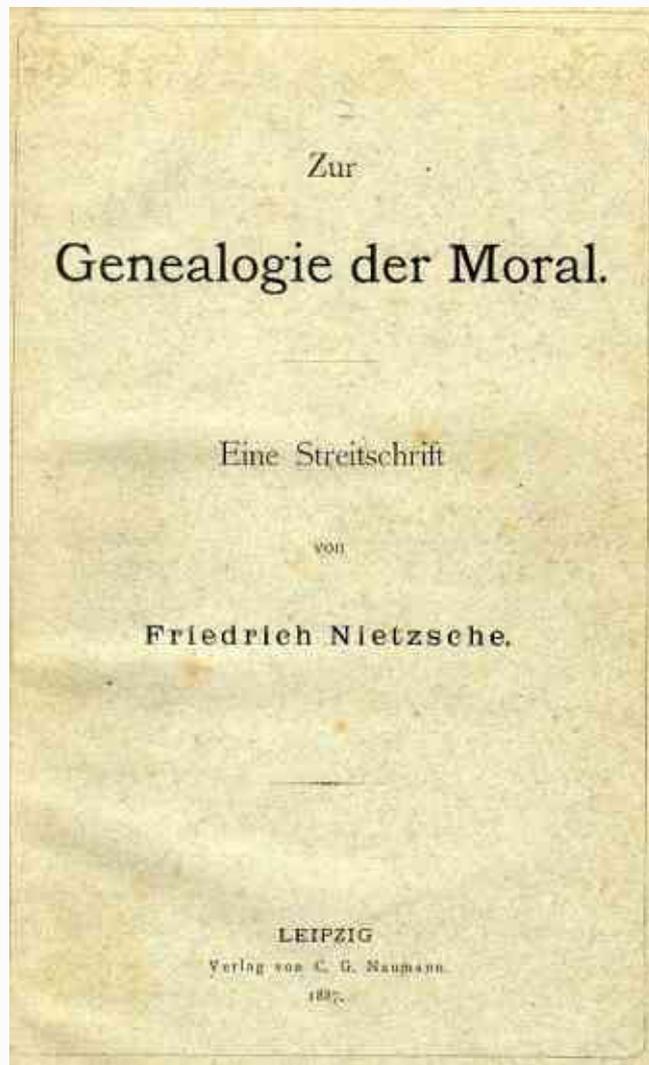
지식 노트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

프랑스의 철학자. 2차대전 이후 독창성과
영향력 면에서 가장 뛰어난 서구 사상가로 꼽힌다.
저서 : 『광기의 역사』, 『감시와 처벌』, 『성의 역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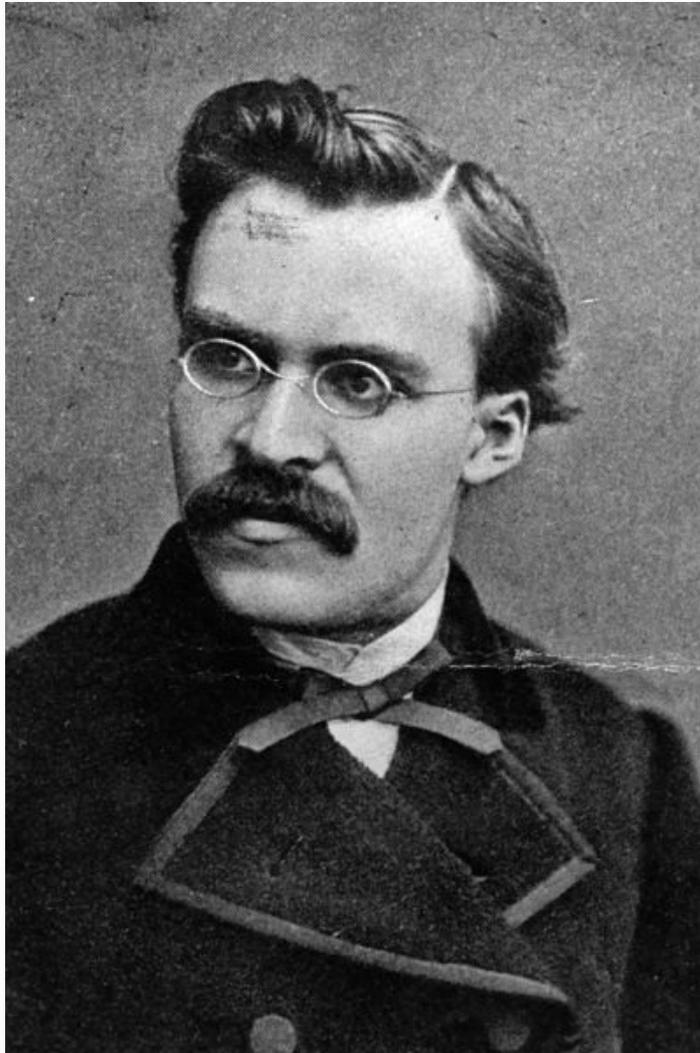
지식 노트



『도덕의 계보』(프리드리히 니체, 1887)

1. 도덕의 개념과 가치의 발생사를 계보학적 방법론으로 분석.
2. 세 개의 독립된 논문으로 구성됨.
3. 기독교적 이웃 사랑의 도덕을 원한 심리가 깃든 위선적인 ‘노예 도덕’이라 비판하고, 고귀하고 진정한 도덕은 ‘군주 도덕’이라 주장함.

지식 노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1883~1885)

니체의 사상을 집대성한 대표작으로, 일반적으로 니체의 주요 개념으로 여겨지는 영원회귀, 초인, 권력의지 등의 개념이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강의 노트

〈정신병원, Casa de locos〉

스페인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Francisco Goya)의 작품. 고야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당시 사회상을 풍자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특히 현실의 불합리, 인간의 욕망, 광기에 주목하였다.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분리, 분류, 배제하기 시작
= 노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를 골라냄

부르주아의 이상에 맞는 자 =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자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정상성’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비정상인’이 필요했던 것!

인간이 본질적으로 ‘합리적 이성의 소유자’인 것이 아니다. 합리성에 대한 개념은 광기의 배제를 통해 만들어진 정의다.

중세의 최고 죄목은 ‘탐욕’이고 가난은 신성함, 청빈함으로 좋은 덕목이었으나 계몽주의 시기의 최고 죄목은 ‘게으름’이었다.

근세 이후 준법의식, 근면성 같은 개념이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합리성’과 같은 개념도 강조되기 시작

광인을 보는 시각의 변화

- 고전주의 시기 (17~18세기): 격리수용의 대상
- 근대(19세기): 치료의 대상(의학담론의 대상) = 환자

광인은 정신 발달 장애가 있는 ‘환자’로서, 정상이 될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했다.

자신의 비정상성을 깨닫고 정상적 부르주아적 합리성을 갖추라는 강요를 받음 → 죄의식과 열등감을 내면화

르네상스 시대까지만 해도 광대, 바보, 미치광이들은 때로는 진실을 말하고 지혜와 영감을 주는 존재로 여겨졌으며 보통사람들과 어울려 지냈다.

지식, 학문은 권력이 된다.

푸코는 ‘지식의 고고학’과 ‘권력의 계보학’이라는 두 가지 방법론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했다.

니체의 계보학

푸코의 ‘권력의 계보학’은 니체의 계보학의 영향을 받았다. 어떤 관념이 언제부터 그러한 방식으로 쓰이고 의미를 갖게 됐는지, 그 역사적 기원을 탐구하는 것.

니체가 말하는 권력 의지와 선악의 관점

1. 힘의 의지 = 권력 의지 = der Wille zur Macht
2. 모든 존재자의 본성은 ‘이성’이 아니라 ‘권력 의지’이며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을 ‘선’으로 봄
3. 선과 악의 도덕적 가치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관점에 따라 해석되는 것’이다.

노예의 관점에서

선: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일을 덜 시키는 것, 편하게 해주는 것.

악: 폭력, 억압, 강제

주인의 관점에서

선: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것, 더 명예롭게 하는 것,
내 삶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

악: 나를 비겁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

“도처에 힘의 의지가 있다”

= 모든 존재자는 자신의 힘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애쓴다

= 모든 관계는 권력 투쟁의 관계

→ 두 사람만 있어도 권력 관계가 발생한다

푸코는 니체의 ‘권력’이라는 개념을 지식과 연관시킨다. 지식과 권력은 상호작용하는 복합체이며 근대적 지식은 합리성, 정상성 따위의 개념을 만들어낸다.

푸코는 ‘지식의 고고학’과 ‘권력의 계보학’이라는 두 가지 방법론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했다. 이러한

측면이 저서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Surveiller et punir: Naissance de la prison, 1975)에 잘 나타난다.

푸코는 자유주의적 권력 개념과 전체주의적 권력 개념을 모두 비판한다

1. 자유주의적 권력 개념: 사회계약론
(예: 홉스의 리바이어던)
2. 전체주의적 권력 개념: 마르크시즘 (특정 계급의 생산력 독점으로 생기는 권력의 억압 가설)

『리바이어던』 (Leviathan, 1651)

토마스 홉스가 자신의 사상을 집대성한 저작으로 서양 정치철학사상 가장 위대한 저작물 중 하나로 손꼽힌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추구한다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투쟁으로 가득 찬 공포스러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계약으로 국가를 만들고 개인의 권리를 양도한다.

원제는 『리바이어던, 혹은 교회 및 세속적 공동체의 질료와 형상 및 권력』

(Leviathan, or The Matter, Forme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 and Civil)

푸코는 권력은 소유, 획득, 양도, 유통할 수 있는 실체적 재화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마르크시즘도 권력을 계급 간 투쟁으로 획득, 쟁취할 수 있는 ‘실체’로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푸코는 이를 거부하였다.

“도처에 힘의 의지가 있다”

1. 권력은 소유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 미시적이고 편재적이다
2. 편재: 遍在, 두루 퍼져 있음,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함

권력의 또 다른 측면: 생산과 창조

권력이 생산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유, 삶의 형태가 만들어진다.

의사와 환자 또한 권력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주체와 대상이다.

권력-지식 복합체의 생산적 속성

1. 권력은 단순한 억압, 의무, 금지, 강제, 부정이 아니라 생산적 효과가 있다.
2. 권력-지식 관계망에 들어온 인간을 그 관계망의 '주체'와 '대상'으로 생산한다.
3. 지식과 관련 없는 권력관계는 없고, 권력관계를 만들지 않는 지식도 없다.

병원에서는 의학적 담론 속에서 환자가 '생산'되고 있다.

우리의 통념에 정답은 없다

근대적 주체 개념도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특정 지식-권력
복합체의 효과로 ‘만들어진 것’일 뿐.

학습 요약

- 푸코의 고고학적 분석에 의하면 ‘광인’에 대한 관념은 계몽주의 시기를 지나며 크게 변했다.
- 지식과 학문이 권력으로 작용하는 특성에 따라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관념은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다.
- 권력은 인간을 억압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특정한 주체로 생산하는 측면이 있다.
- 예를 들어, 의사가 의학 담론을 토대로 누군가를 환자로 지목하는 것은 권력관계 속에서 환자라는 존재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반적인 ‘통념’도 만들어지고 있다.

인문 퀴즈

1.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가 주장한 개념. 생존과 투쟁을 통해 강함을 추구하는 모든 존재자의 본성으로, 이를 통해 니체는 도덕적·이성적 가치 역시 그 자체로 타당한 것이 아닌 이것의 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 (1) 초인
- (2) 권력에의 의지
- (3) 아폴론적인 것
- (4) 디오니소스적인 것

인문 퀴즈

2.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독창적이고 영향력 있는 철학자로 평가받는 프랑스의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에 대한 설명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 (1) 대표 저서로는 『광기의 역사』, 『성의 역사』, 『감시와 처벌』 등이 있다.
- (2) 권력을 하나의 구체적인 실체가 아닌 일상의 도처에서 작용하는 미시적이고 편재적인 것으로 보았다.
- (3) 마르크시즘이 권력을 계급 간 투쟁으로 획득·쟁취할 수 있는 ‘실체’로 본다는 점을 비판했다.
- (4) 권력의 힘이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학문’과 ‘지식’을 주장하며, 합리적 사유의 윤리를 강조했다.

인문 퀴즈

3. 권력의 문제를 계보학적 방법으로 해부해낸 현대 철학자 미셸 푸코의 저서 『광기의 역사』에서 다루진 광기에 대한 시대적 양상을 설명한 것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1) 르네상스까지 광기는 종교적 악으로 간주되어 사회 밖으로 추방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초자연적·예지적 능력으로 추앙받기도 했다.

(2) 합리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한 고전주의 시대에 이르러 광인 수용소가 등장하면서, 광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감금이 시작되었다.

(3) 광인을 정상인들로부터 격리한 고전주의 시대에는 광기에 대한 사회적인 공포와 분노는 사라지고, 완전히 잊혀졌다.

(4) 근대 이후의 광인들은 정신병 환자, 범죄자 등 의학적 치료나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치부, 사회로부터 격리·감금되었다.

정답

1. (2) 2. (4) 3. (3)

3. 광인을 감금하면서 그것에 대한 공포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전염병의 근원지 등으로 의심받으며 분노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강의 보기

- 퍼블릭 도메인

지식 노트

- 퍼블릭 도메인
- 퍼블릭 도메인
- 퍼블릭 도메인

미셸 푸코가 말하는 지식과 권력의 관계

강사 : 김재희

발행 : (주)아트앤스터디

Tel: 02-323-1081

Fax: 02-323-1082

메일: biz@artnstudy.com

전자출판물 인증번호: ECN-0199-2013-100-001780193

본 강의의 저작권은 (주)아트앤스터디에 있습니다.

아트앤스터디